

주요개념 : 모아상호작용

##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대한 연구

권 미 경° · 한 경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영아가 그의 모친과의 사이에 형성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는 후기에 아동의 능력 및 다각적 측면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 그리하여 일탈된 모아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초기 영아에게는 생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한, 1987). 따라서 초기 모아의 싱호작용 형태를 사정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첨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숙아는 신체 생리적인 미숙으로 인한 장애 문제로 특수 간호가 요구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모아가 장기간 분리되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은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미숙아를 분만한 부모에게 모아가 분리된 조건에서도 모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 지지해줄 뿐 아니라 미숙아 출생 자체로 생긴 자존감의 상실, 죄책감, 내적 열등감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숙아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의 저하때문에 발생하는 모성정체감 형성의 결여를 인

지하여 영아초기에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이 유발되도록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숙아에 대한 임상적 고찰(김인숙, 1970 : 오송실, 1972 : 신춘례, 1973)이나 미숙아와 정상아의 영유아기 성장 발달상태의 비교연구(박영애, 1985)를 제외하고는 모아 관계를 형성하는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규명하여 미숙아와 그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제공을 위한 간호중재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문제의 진술

첫째,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차이가 있는가?

세째,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서울 중앙병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4. 가 설

첫째,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째,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5. 용어의 정의

**모아상호작용** : 모아가 상호 보여주는 행동 반응으로서 영아를 안는 영아 어머니의 동작, 형태, 감정의 표현, 영아에 대한 근접성 행동, 영아와의 놀이 형태 및 영아의 미소유발시도 행동 그리고 영아의 반응 행동과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구성된 MIPIS(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의 점수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모성 정체감** : 어머니 자신과 영아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된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영아에 대한 인지를 의미 미분법으로(Semantic Differential Scale)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정체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 6. 연구의 제한성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신을 표현하는 산모의 성격이나 신생아의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II. 문헌고찰

### 1. 모아상호작용

모아 관계는 인간 사이의 가장 의미있고 친밀한 관계로서 결속이나(bonding) 애착(attachment)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독특한 관계속에는 생물학적이며, 심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아동의 측면에서 보면 생존을 보장하고 운명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본적 관계일뿐 아니라 모성측에서는 경험을 충만하게 하는 개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가 된다(Bigner, 1985). 그러한 모아 관계는 개인적, 신체적 특성을 지닌 어머니와 유전적 생

물학적 특성을 지닌 초기 영아와의 사이에 모아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모아상호작용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독특한 모아 관계를 형성시킨다(Belski, 1984 ; Thomas & chess, 1977).

또한 모아는 각기 다른 단계에서 발달하고 있는 인간 개체로서 영아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출생당시부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영아는 어머니로부터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만아니라 음성이나 얼굴표정 그리고 몸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도 한다(Thomas & chess, 1977 ; Tulman, 1981). Bigner(1985)에 의하면 모아 관계는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체계로서 각 개인은 행동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로서 일련의 행동에 참여하는 상호작용 체계이며 모아상호작용 체계의 특성은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각 개인에 의한 자극투입, 반응신출, 그리고 모아간 균형유지를 위한 상호 관계의 조직과 질서를 완성하고 참여자와 환경사이의 상호 교환과 변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모아상호작용의 질(quality)은 후기 아동의 능력과 여러 측면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 일탈된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상들은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볼때 모아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모아 관계는 발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Pettis & Bate, 1984 ; Schneider-Rosen, 1984 ; Sroufe, 1985).

### 2.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모아 관계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반면에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아상호작용에 관련되는 요인은 다양하며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되어 왔다.

Barnard(1974)에 의하면 모아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첫째, 영아의 특성으로서 행동, 수면양상, 의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적용하는 능력과 기질을, 둘째, 어머니의 요인으로서 심리, 사회적 특성, 건강상태, 어머니가 경험했던 생활의 변화량, 영아에 대한 관심, 기대 및 틀봄의 형태와 적용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 (1) 영아의 특성

영아의 특성은 모아상호작용 만큼이나 부모 행위에

영향을 주며 영아는 어머니로부터의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유도하기도 한다(Thomas & Chess, 1978). 즉, 영아의 자극에 어머니의 행동은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영아의 특성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Bigner, 1985, Brazelton, 1983 : Thomas & Chess, 1977). 또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발전과 모성 행위는 영아의 자극 및 그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산육기 초기의 모아의 접촉은 모아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Ludington-Hoe, 1977). 그러나 미숙아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Goldberg et al, 1979)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리적으로 미숙한 영아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처 준비가 걸 된 어머니는 부모, 영아 및 환경적 스트레스 요소들로 인하여 부모역할장애(Parenting disorder)를 경험 하므로 만삭아보다는 미숙아에게서 더 자주 부모로서의 역할 장애를 느끼게 된다(Klein & Stern, 1971 : Schumitt & Kempe, 1975). 미숙아 어머니는 자존심, 모성적 능력, 여성적 역할에 충격을 받으며 비통반응, 죄책감, 내적 열등감을 갖게되어 미숙아를 거부하게되며 따라서 미숙아는 특별한 기능적 장애가 없이도 성장에 실패하거나 혹은 학대를 받아 피학대아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으로 인해 병원에 재입원되는 수도 있다. 이는 모아 결속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긴감기에 (Sensitive period) 모아가 분리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아에게 모성 애착을 발전시키지 못하게된 결과라고 본다(Klaus & Kennel, 1982).

특히 시각적 접촉과 피부 접촉이 모아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아와 장기간 분리되어야하는 미숙아 어머니의 경우, 미숙아와 마찬가지로 애착 장애를 느끼게 되며 분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실패의 감정과 상실감으로 인해 모아 관계를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Cramer, B., 1982). 또한 Blake(1975)에 의하면 미숙아의 퇴원 후 그의 어머니의 모성 행동을 관찰하였을때 미숙아의 반응, 신호를 인지하는데 민감하지 못하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모든 일에 적절히 응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지치게되고 이에 따라 적개심을 품게되나 반면 이 적개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들을 충분히 설명할 합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유, 구토, 변비 등 미숙아의 신체적 어려움 등만을 불평한다고 하였다. Field(1982)는 미숙아는 혐오적, 방어적 반응을 활성화하는데 대한 역치는 낮고 지

남력이나 집중 반응에 대한 역치는 높기 때문에 쉽게 불안정해지고 안정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미숙아는 더 어리고 부서질것 같아서 어려움으로 인해 덜 좋아하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덜 능동적이다(Stern & Hidebrandt, 1986).

## (2) 모성 정체감

임신과 분만은 새로운 과정을 겪고 새 식구를 맞이하는 부모에게 종래와 다른 역할을 갖게 하는데 변화된 역할과 생활양식은 긴장과 불안, 갈등을 초래하게 하므로 부모는 새로운 환경을 향한 정서적인 적응이 필요해진다(Meleis & Swendsen, 1978).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모성 역할은 먹이고 양육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으로서 모성 역할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규범, 사회적 계층, 그리고 그가 속한 윤리적 단체, 사회화의 형태, 자신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취급받았던 경험이 기초가 된다. Rubin(1977)은 모성 역할은 흡내(mimicry), 역할극(role play), 환상(fantasy), 투입-투사-기각과정(introjection-projection-rejection) 그리고 모성 정체감 형성의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획득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관계는 성립된다고 하였다. Thorton과 Nardi(1975)에 의해 기술된 예상되는 모성 역할의 사회화는 임신기간동안 태아와 정서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부인에게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궁내의 태아와 관련을 갖고 역할극을 시작하고 아기의 출생과 함께 형식기(formal stage)에 들어가 역할 동반자(role partner)와 함께 자녀 양육 과업을 떠맡는것에 대한 동일시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때 기대와 현실이 부합되지 못하면 어머니는 꿈과 환상을 잃는 습癖때문에 신생아에게 흥미를 잃고 부모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Clark & Affonso, 1976 ; Jenkins & Westhus, 1981).

Sheehan(1981)은 모성 역할을 획득함에 있어서 역할지각의 외적 요구와 기대의 자아상(Self-image)을 유지하려는 내적 요구가 합해져서 이 두가지의 요구가 꼭 맞을때 정체감이 형성되며 역할지각과 자아상의 갈등이 클수록 정체감의 혼돈이 커지고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모성 정체감의 형성은 임신과 출산후의 과정으로서 임신기간 동안의 모성 정체감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상(image)을 이상화함으로써 형성되고, 산육기 동안에는 제3자인 영아와 능숙한 모성 역할자의

기대에서 자신의 영아와 어머니로서의 자신으로 촛점이 이동하게 되어,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아기로서 영아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결국 모성 정체감은 어머니와 영아와의 개인적이면서도 특수한 상호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모성 정체감 획득과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되는 모아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표현된다(Rubin, 1984 : Walker, 1986).

신생아 시기 동안에 모성 정체감 형성을 위한 모성 역할 획득정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점은 영아의 특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영아의 특성에 대한 모성 역할의 커다란 부분으로서 영아의 신체상태나 안녕에 관련된 자녀 양육 활동이며(Adams, 1963) 수유, 수면, 배설, 체위조절과 같은 생물학적 조절(biological regulation)은 분만후 첫 3개월 동안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Saundar(1969)는 이론화 하였다. 또한 영아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면 정체감의 혼돈이 증가되며 따라서 모성 역할 획득이 지연되어 영아의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나아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도 보고된 바 있다(Sheehan, 1981 ; Mercer, 1981). 특히 미숙아의 출산인 경우 손상받기 쉽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되고 다루기 어렵다고 인지되었을 때 미숙아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어머니는 자신감의 결여로 모성 정체감에 영향을 미쳐 돌봄의 양상이 변화되고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Benfield, 1976 ; Bla-ke, 1975 ; Cramer, 1982 ; Haper, 1976 ; Kaplan & Manson, 1960 ; Minde, 1978, 1979, 1980 ; Newman, 1980). 또한 미숙아에 있어서 퇴원후의 모아 관계는 미숙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대처, 가족이나 의료진의 지지,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획득한 긍정적인 모성 정체감에 따라 증진된다고 하였다(E. A. Mason, 1963).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미숙아군** :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제태기간이 38주 미만으로 쌍생아가 아니며 선천적 결함이나 미숙아외의 질병이 없고 출생 5분의 Apgar score 가 7이상인 미숙아로 그의 어머니와 분리되어 보육기에

서 일정기간 특수 간호를 받고 퇴원후 4~6주만이 미숙아 크리닉을 정규 방문한 신생아와 병록지 조사결과 신체적, 정신적인 과거력이 없는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만삭아군** :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이며 임신제태기간이 38주 이상으로 쌍생아가 아니며 선천적 결함이나 질병이 없고 출생 5분의 Apgar score가 7 이상인 건강한 신생아로 생후 4~6주만에 예방접종을 위해 정규 방문한 신생아와 병록지 조사결과 신체적, 정신적인 과거력이 없는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 2. 연구 절차

**관찰자 훈련** : 연구자는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면허 간호사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MIPIS 적용에 대한 관찰자 훈련을 받았다. 1987년 7월 20일부터 총 15쌍의 모아를 대상으로 관찰 훈련을 받은 결과 .85의 일치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

**자료수집** : 198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S병원에서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에 충족되는 만삭아 25명 미숙아 12명을 임의 추출법으로 선정하고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수인 신생아 성, 수유방법, 분만형태, 출산력에 대하여 짹짓기 위하여 만삭아 12명과 미숙아 12명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인구학적 특성과 모성 정체감에 관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검진실 옆 조용한 방에서 수유를 시키게하여 수유후 자연스런 놀이시간을 15~20분간 주어 모아상호작용을 관찰자와 함께 관찰하였다.

#### 3. 연구 도구

**모아상호작용 측정도구(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 MIPIS)** :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반응 그리고 모아상호작용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5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당 행동 반응의 기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이 도구를 가지고 관찰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전문가로 부터 도구의 적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 관찰자간의 일치도 .85를 얻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결과 연구자와 관찰자간 신뢰도는 Spearman-Brown 통계분석에 의해서 신뢰도 계수 .99를 얻었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 검사결과 Cronbach  $\alpha$  .92였으며 같은 절차로 출산후 6~8주의 모아에게 사용한 한, Choi (198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98를 보여주었다.

의미 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 : 모성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를 측정한 도구로 Osgood, Suci, Tannanbaum 의 의미 미분법 중 연구자가 해석하여 모든 13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구성된 likert Type 의 도구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사한 결과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인지는 Cronbach  $\alpha$ .74, 자신의 영아에 대한 인지는 Cronbach  $\alpha$ .83으로 나타났다. Walker(1986)의 연구에서는 각각 .85와 .77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미숙아군과 만삭아군의 동질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x^2$ -test로 분석하였으며 두군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표집대상수가 적어 정규분포곡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통계법(nonparametric statistics)인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다(이는  $\alpha=$ .05수준에서  $n_1=12$   $n_2=12$

일때 U값 27을 나타낸다). 또한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Rank Correlation 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1.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어머니의 연령은 만삭아군에서 평균 연령 28.17, 미숙아군에서 평균 연령 30.08로 미숙아군이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 수준은 두군 모두 고졸 이상의 고등학력을 나타냈으며 직업유무, 분만이전의 유산경험의 유무, 가족형태, 결혼기간에 대하여  $x^2$ -test로 두군을 비교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미숙아 모아군과 만삭아 모아군의 모아상호작용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삭아 모아군 모아상호작용 평균 점수는 60.75이고 미숙아 모아군 모아상호작용 평균 점수는 47.33으로 Mann-Whitney U-test로 통계적 분석 결과 U값 21로 두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1〉 The comparison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Variables	Full-term		group No	Premature No	group %	$x^2$ .	p
어 머 니 나 이	below above	29 30	8 4	6 6	67 33	0.1714	0.6788
학 력	고 대	졸 졸	7 5	8 4	58 42	0.0	1.000
직 업	유 무	무	2 10	3 9	17 83	0.0	1.000
유 산	유 무	무	3 9	5 7	25 58	0.1875	0.66
결 혼 기 간	1년 2년	이하 이상	6 6	7 5	58 42	0.0	1.000
가 족 형 태	핵 대	가 족 가 족	10 2	83 3	9 17	0.0	1.000
출 산 험	초 경	산 산	9 3	9 3	75 25	0.0	1.000
아 기 성 별	남 여		6 6	6 6	50 50	0.0	1.000
수 유 방 법	인 혼	공 합	10 2	10 2	83 17	0.0	1.000
분 단 방 법	질 제	식 왕 결 개	7 5	7 5	58 42	0.0	1.000

〈Table 2〉 Mean and U-value of MIPIS score between Full-term & Premature baby group.

Full-term group			Premature group			U
No	Mean	SD	No	Mean	SD	
12	60.75	5.05	12	47.33	7.91	21**

\*\*=p<0.01

3. 가설(2)를 검증한 결과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정체감 인지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삭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104.83이고 미숙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99.67로 Mann-Whitney U-test로 통계적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모성 정체감 인지를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자신의 아기로서 영아에 대한 인지로 나누어 보았을때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지는 만삭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50.25이고 미숙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48.50으로 Mann-Whitney U-test로 통계적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아기로서의 영아에 대한 인지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삭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54.58이고 미숙아 어머니군에서 평균 51.33으로 Mann-Whitney U-test로 통계적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Table 3〉 Mean and U-value of Maternal Identity score between Full-term & Premature baby group.

Full-term baby group			Premature baby group			U
No	Mean	SD	No	Mean	SD	
12	104.83	10.08	12	99.67	11.47	53.5

〈Table 4〉 Mean and U-value of SDS-as mother between Full-term & Premature baby group.

Full-term baby group			Premature baby group			U
No	M	SD	No	M	SD	
12	50.25	5.29	12	48.50	5.77	59.5

〈Table 5〉 Mean and U-value of SDS-my baby between Full-term & Premature baby group.

Full-term baby group			Premature baby group			U
No	M	SD	No	M	SD	
12	54.58	6.30	12	51.33	6.91	61.5

4. 가설(3)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의 상관관계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earman Rank Correlation으로 통계적 분석 결과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는  $rs = -.087$ 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 V. 논 의

이상과 같은 결과로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군의 동질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며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간의 모아상호작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모성 정체감 인지 정도는 미숙아 어머니군이나 만

〈Table 6〉 Spearman Rank Correlation of MIPIS Score and Maternal Identity Score

	MIPIS Score
Maternal Identity Score	$rs = -.087$

삭아 어머니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모아상호작용에서 두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신생아 자신의 특성 즉, 미숙아의 신체적 취약성과 장기간의 모아 분리에 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Bakeman과 Brown(1980)의 미숙아와 만삭아 부모의 행동을 신생아 시기에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으며 Rubin(1977), Belski(1984)

는 분만후 모아 관계는 점진적으로 형성되는데 영아의 성, 신체적 조건, 체중 및 신장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숙아가 분만되면 즉시 집중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신생아실로 보내지는데 이는 Rubin(1983)이 모아·관계의 시작 행동이라고 말했던 접촉이 장기간의 모아·분리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어 접촉 행동에 의해 발달되는 영아에 대한 애정, 자신감 및 신뢰감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는 Bowlby와 Ainsworth가 모아·분리하는 영아에게 반응하기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애착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던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실패의 감정을 일으키는데 모아 분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증가되어 어머니로서 자신감을 잃게되어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Klaus 등(1982)은 분만 초기 장기화된 신생아 입원은 자연스런 모아결속을 방해하여 후에 더욱 일탈된 모아 관계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어머니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접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숙아 어머니에게 접촉시간과 접촉횟수를 증가시켜 연구한 결과 퇴원후 영아에 대한 반응이 더욱 민감해지고 애정적임을 나타내 모아 분리의 영향을 설명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아의 행동을 자극하고 또한 반응하는 어머니의 민감성을 기초로 하는 모아 상호작용은 미숙아군이 만삭아군보다 수동적이어서 어머니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어 상호작용이 자주 단절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Field(1977, 1982) Crawford(198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Stern과 Hidebandt(1986)의 미숙아 자신은 만삭아보다 더 수동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Field(1980), Goldberg(1978)에 의하면 미숙아의 수동성은 부모의 상동적 믿음(Stereotyping belief) 즉, 자신의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 다치기 쉽고 미성숙하여 신체적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모의 믿음으로 인한 자극의 결여 때문인 것으로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미숙아군 어머니가 신체적 접촉이 적고 미소짓는등의 애정적 행동이 만삭아군보다 적은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위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Crawford(1982)와 Goldberg(1978)의 연구에서와 같이 오히려 미숙아 부모들이 애정적 행위와 돌봄의 행동을 만삭아에게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

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Rubin(1977)은 모성 정체감과 영아와의 결속 과정은 영아의 특성과 가족구성원에 의해 증진될 수도 퇴보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첫번째 자극이 영아자신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영아의 특성 즉 성별, 연령(Moss, 1968 : Rubin, 1977), 크기 (Rubin, 1977 Belski, 1984)와 어머니의 인지에 영향을 받아 모아 관계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이를 쉽게하고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인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아 분리로 인해 어머니 역할 기회가 차단되고 미숙아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함을 느껴 모성 정체감에 변화가 있다는 문헌들과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문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미숙아라는 특성으로 인한 모아 분리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위적으로 동질성을 갖도록 동제했기 때문에 것으로 사료되어 분만의 합병증이나 영아에게 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간의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숙아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많고 교육수준이 높아 미숙아 출생으로 인한 모성 정체감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지 정도를 보면 영아에 대한 인지면에서 미숙아군 어머니는 만삭아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작고 약하게 느끼는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미숙아군이나 만삭아군 모두에게서 자신의 영아가 매우 예민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어 아직 어머니로서 자신감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아상호작용에는 두군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뚜렷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한, 박(1985)과 한, Choi(1986)의 모성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했던 연구와 같이 신념을 기초로 한 모성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태도 즉 면의 사정(assessment)은 좀 더 긴 시간의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순간의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아상호작용은 계속되어 모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미숙아의 모아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숙아 부모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미숙아 간호에 어머니의 참여, 부모의 정

규적인 조산아실 방문 횟수의 증가등으로 신체적 접촉은 물론 정신적 접촉은 유도하도록 장려하는 간호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 정도를 비교하고자 1987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숙아군 12명과 만삭아군 12명, 총 24명의 모아를 대상으로 모아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모성 정체감 인지 정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은 만삭아 어머니 군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U=21$ ,  $P<0.01$ ).
- (2)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 정체감 인지는 만삭아 어머니군에서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 (3)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은 같은 결과로서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을 유발시키고 모성 정체감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 미숙아 간호에의 참여유도 등의 간호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 2. 제 언

- (1)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과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에 관한 연구로 단기적인 차이를 보았지만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미숙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태임, 모아애착과 회복이 어려운 환아의 치료포기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1982, 12(2), 31~43.  
박영숙, 변희재, 신생에 대한 산모의 감지도에 관한 연

- 구, 대한간호학회지, 1984, 14(1), 50~59.  
박영애, 미숙아와 정상아의 영유아기 성장발달 상태 비교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85, 15(3), 62~73,  
박재순, 최의순, 산욕 초기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태도 및 모성역할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최신의학, 1981, 24(4), 94~103.  
심미정, 분만 제3기 및 4기 동안 한국 문화적 모아애착 행위, 대한간호학회지, 1984, 23(3), 77~84.  
이경혜,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 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2, 12(2), 67~77.  
이자형, 김진향 : 산모의 신생아에 애착 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1, 11(2), 9~19.  
임은숙, 어머니와 신생아의 조기피부접촉이 모성유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조미영, 이경혜, 고위험 모성 간호학. 서울 : 수문사, 1983.  
한경자, 박영숙, 산전 Lamaze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1985, 15(2), 16~24.  
한경자, Choi, E.S.C. Influence of Explanation of Infants Behavior and Eliciting Infants Social Response on Mother-Infant interaction,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986, 1(1), 3~12.  
Anderson, C.J. Enhancing Reciprocity between Mother & Neonate, Nursing Research, 1981, 30(2), 89~93.  
Barnett, C.R., Leiderman, P. Grobstein and R. Klaus, M. Neonatal Separation : The Maternal side of Interactional Deprivation, Pediatrics, 1970, 45(2), 197~205.  
Belsky, J., Gilstrap, B. and Rovine, M.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 stability and change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1984, 55, 692~705.  
Belsky, J., Rovire, M. and Taylor, D.C.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ial and Infant contributives, Child Development, 1984, 55, 718~728.

- Crawford, J.W., Mother-Infant Interaction in premature & Full-term Infant, *Child Development*, 1982, 53, 957-962.
- Curry, M.A.,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 the Mother's self-concept : The Effect of Early Skin-to-Skin contact, *Nursing Research*, 1982, 31(2), 73-78.
- Egeland, B. and Farber, E.A.,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1st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1984, 55, 753-771.
- Fomufod, A.K., Sinkford, S.M. and Louy, V.E. Mother-child Separation at Birth : a contributing factor in child Abuse, *Lancet*, 1979, 20, 549-550.
- Frodi Ann, Thompson, R. Infants' affective responses in the strange situation Effect of Prematurity &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1985, 56, 1280-1289.
- Gaffney, K.F., Maternal-Fetal Attachment in Relation to selfconcept & Anxiety,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86, 15(2), 91-99.
- Klaus, M.H.M. and Kenne H., *Parent-Infant Bonding 2nd Ed.* The C.V. Mosby Co., St. Louis, Toronto, London, 8084, 1982.
- Lester, B.M., Moffman, J. and Brazelton, T.B., the Rhythmic Structure of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erm and Pre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5, 56, 15-27.
- Ludington-Hoe S. postpartum : Development of maternity *A.J.N.*, 1977, 77, 1171-1174.
- Merce, R.T.,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1985, 34(4), 198-204.
- Mercer, T. Ramon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ial,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sing Research*, 1981, 30(2), 73-77.
- Minde, K.K. and Marton, P. et al,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Premature Nurse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80, 19, 1-21.
- Minde, K and Shosenberg, N. et al, Self-help group in a premature nursery, *The Journal of Pediatrics*, 1980, 96(5), 933-940.
- Moss, H.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 Development*, Brunner /Mazel Inc., 1968, 73-91.
- Pasamanick, B., Ill-Health & child Abuse, *The Lancet*, 1975, 20, 550.
- Pesamanick, G.H. and Hehl, L.E., Some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8, 135, 1168-1173.
- Robson, K.S. and Moss, H.A. Patterns &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The Journal of pediatrics*, 1970, 77(6), 976-985.
- Rubin R., Bonding-in the postpartum, 1977, M.C. N., 6(2), 67-75.
- Sheehan, Franch, Assessing postpartum Adjustment, 1981, JOGN, 1-2.
- Stern, M. and Hidebrandt K.A., Premature Stereotyping : Effects on Mother 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t*, 1986, 57, 308-355.
- Thornton, Russel and Nardi P.M., The dynamics of Role acquisition, *A.J. Social*, 1975.
- Tulman, S.J.,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1981.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4), 7-14.
- Walker, S.O. and Thompson, E.T., Mother-Infant play Innteraction Scale, in Humnick, S.S.(ed), *Analysis of Current Analysis of current Assessment strategies in the Health care of Young children and child bearing Family*, 1982, 191-201.
- Walker, L.O., Crain, H. and Thompson, E., Maternal Role Attainment &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change, *Nursing Research*, 1986, 35(2), 68-71.

**- Abstract -**

**A Study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Maternal Identity in Mother-  
Infant dyads of Premature and Ful-  
l-term infants.**

*Kwon, Mi Kyung\** · *Han, Kyung Ja\*\**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Maternal identity in two groups, that is, premature infant and its mother and full-term infant and its mother.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

sample groups(12 for premature dyads and the remaining 12 for full-term dyads) by using observation method and questionnaires during July, 20 through September 30, 1987.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erm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full-term dyads considerably stood out compared to that of premature dyads( $u=21$ ,  $p<0.01$ ).
2. In terms of Maternal Identity, though full-term dyads showed somewhat high results,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 There was not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Maternal Identity.

---

\*Seoul Jung 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 Dept. of Nursing.